

‘여름 아웃리치 이렇게 준비하자’

- 박관태 선교사

단기선교의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변화”이다. 선교지에서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이 전환되는 것이다. 이것이 단기선교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전도종족을 찾아가자

단기 선교는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종족(untargeted people)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몽골에는 20여 개의 소수 민족과 곳곳에 미전도종족이 숨어 있다. 수도인 울란바토르에는 100여 개의 교회가 있으며 대부분의 아웃리치가 도시에만 국한되어 있다. 모슬렘인 바양울기의 카작족, 순록을 키우며 사는 차튼족,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브리야트족을 향한 사역이 지금 온누리 선교사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으며 단기팀 사역 역시 이러한 흐름과 목표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여름 아웃리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지속적인 사역이다. 아웃리치는 현지 선교사가 가서 길을 열어놓고, 아웃리치팀과 함께 그 길을 넓히고 굳혀 최종적으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몽골의 모슬렘 종족인 카작족 사역이 지속적인 사역의 좋은 모델이다. 먼저 의료팀이 들어가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형태로 선교를 시작한 다음, 단기팀이 카작족의 10대들과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다. 이 사역은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후레 대학에서 컴퓨터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선교란 한번에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듯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 이어져 가야 하는 긴 여정이다. 그러기에 단기선교를 통해 단번에 이루어지는 열매를 보려하기 보다는 한 나라, 한 종족, 한 지역을 품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전문성 살린 아웃리치 준비하자

둘째, 아웃리치 사역을 전문화해야 한다. 현지 사역자로서 아웃리치팀이 선교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역을 해주면 좋을 것이다.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 현지 선교사들은 할 수 없는 특화되고 전문화 된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성령집회, 전문 의료사역, 가정훈련학교나 결혼훈련학교 등의 프로그램, 컴퓨터 교육, 한국 요리강습, 교회 건축 협조, 찬양 콘서트 등 아이템은 얼마든지 있다. 공동체 단위로 팀이 구성되는 것도 좋지만, 의료팀, 이미용팀, 건축팀, 컴퓨터 교육팀, MK 사역팀, 영상 미술팀, 각종 세미나 관련팀 등 전문 사역팀이 구성되어 수시로 출동 가능한 체제를 이루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곳 병원에는 추석 연

휴 때마다 고대 구로병원 수술팀이 온다. 여름에 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교체하고, 선교사도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다.

교회에 힘을 실어주자

한 영혼이 자라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동안 보아왔다. 따라서 단기팀이 효과적으로 사역지를 돕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교회를 기반으로 사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각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돕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풍부한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연약한 현지교회를 돕는 것은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된다. 아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현지인들은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고, 그 영향력은 일년 이년 지속되어 열매 맺곤 한다. 작년에는 다윗공동체와 JDS팀이 우리 교회에 와서 수련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작년의 그 팀이 올해 다시 오지 않느냐고 물어보곤 한다. 또한 교회에 따라 교회 건축이나 성전을 꾸미는 일을 돕거나 전도를 통해 교회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여름 아웃리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한다. 선교사들은 우스개 소리로 여름 단기팀 사역을 '여름장사' 내지는 '여름농사'라고 부른다. 힘든데도 안할 수는 없는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하지만 주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실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확신하기에 뜨거운 열정과 기도로 몽골을 찾을 많은 성도를 올여름에도 기쁜 마음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은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선물이기 때문이다.

* 출처 : 온누리신문